

故 李 洛 善 前會長 1週忌맞아 墓碑除幕

(碑銘의 終章)

『많은 知己와 社會 또한 公의 발자취를 오래토록 기리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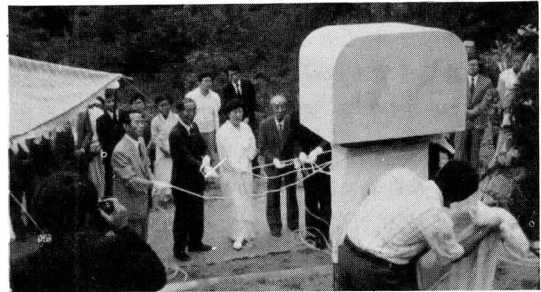
7月 15日 安東 豊山 墓所서 遺族과 各處 親知모여

故李洛善本회직전회장의 유족들은 고인의 1주기를 맞아 지난 7월14일밤 세검정천주교회에서 추도미사를 갖고 다음날인 15일(음력 윤5월17日) 오후 1시경 安東군 豊山읍 水洞묘소에서 亡人과 장남 李準鎔씨를 비롯한 다섯 영애, 문중인사와 각계친지들 약百명이 모인 가운데 본회 吳判龍국장사회로 묘비제막식을 거행했다.

식은 먼저 一周忌祭부터 올렸는데 禮安李氏 문중을 대표한 李之善씨의 축문에 이어 撰을 맡은 文熙膺우인대표의 추도사와 참석인사의 분향이 있었다.

일요일인 이날 묘비제막식은 유족측의 요청으로 널리 공표치 않았으나 많이 참석해 주었는데 본회서는 李圭孝회장을 대리하여 文莊寅부회장이 참석했다. 南平 文熙膺謹撰, 寧越 嚴元杓敬書 14자를 포함 도합 1천65자에 이르는 비문의 終章은 「公을 잃은 우리의 아쉬움과 無常함을 敢히 이 銘으로 어찌 메울수 있으리오. 길지 않은 生涯에 이룩한 公의 行蹟은 凡人이 따르지 못할만치 크고 빛남을 새삼느낀다. 이제 幽와 明을 달리한 가운데 홀롭게 자란 六男妹가 遺志를 이어 받을 것이며 많은 知己와 이 社會 또한 公의 발자취를 오래토록 우러러 기리리라」고 맺고 있다. 碑文刻字와 石物제작 및 공사는 星州 石物土木工社(대표 黃甲性)에서 장마관계로 짧은 時日內에 마무리하느라 애써 주었다.

▼유족과 친척들의 1週忌祭 光景



▲제막식 光景 : 左부터 李之善씨 본회 文부회장·亡人·숙부·가려진이가 文 체육진흥공단이사장·周東植씨와 金澤得씨



▲左부터 고개숙인 동생 茂善씨(左)와 金복현씨(右) 숙부 용구씨·조선일보 출판국 李珍燮위원·文熙膺(胎甲)우인 대표 경향신문 李光勳 논설위원·吳判龍 사회자